

전북도, 재난대책본부 2단계 가동

무주·진안·정읍·임실 등 호우경보 발효 따라... 도내 평균 115.2mm 많은 비

전북도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7일 오전 9시 40분부터는 4개 지역(무주, 진안, 정읍, 임실)이 호우경보로 격상된 가운데 도내 평균 115.2mm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무주군에 149.5mm, 전주시에 147.6mm가 내렸으며, 기상청에서는 장마 전선 영향으로 8일까지 전북지역에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도는 호우특보 상황에 따라 7일 9시 4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해 시·군과 함께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은 현재까지 총 238건(5~7일)이며, 익산시 중앙, 매일시장 내 상가 200동과 일반 건물 6건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고창과 부안 7개 농가에서 3.1ha(비 1.2, 콩 1.5, 수박 0.4)의 농경지도 침수 피해 발생으로 피해조사 및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완주군 상리면 마저리 산45 마을도로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타미 내 토사유출이 발생, 도로를 통제하고 신속

히 복구를 완료했고, 무주군 안성면 일원 3개소에서 산사태위험지역과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마을방송 등 홍보를 실시, 선제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이에 전북도는 7일 10시 현재 10개 시·군 호우주의보, 4개 시·군 경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7일 10시 행정부지사 주

제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7일 11시 유관기관을 소집해 비상 2단계 회의를 진행, 기관별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주요 통제상황으로는 국립공원 등 도내 12개소 전체 탐방로 130개 노선 중 74개 노선이 통제 중이고,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 둔치주차장 6개 시·군의 8개소 출입 통제, 인명피해 우려지역 30개소 및 아영장 5개소 등이 접근통제 중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힘아 등 외딴 곳에 홀로 거주중인 어르신이나 장애우 등 취약계층은 긴급히 연락하여 현황 관리하고, 집중호우 및 피해발생 우려 시 사전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경제, 기지개를 펴자'

재난지원금·여름휴가·추석명절 등 3단계, 9월 말까지 단계별 소비진작 이벤트

전북도가 전 도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불씨로 삼아 골목골목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88일간을 '범도민 소비촉진 운동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촉진 운동은 지난 5일부터 신청·지급되는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1단계) 소비증가 효과가 여름휴가철(2단계), 추석명절(3단계)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계기별 이벤트를 전개한다.

특히,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위해 홍보 메시지를 '전북경제, 기지개를 펴자!'로 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본종은 추가소비와 지역상품 애용뿐만 아니라,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제때 백신접종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도는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1단계, 7월)에는 전북경제 살리는

'슬기로운 재난지원금 사용법' 실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에 앞장서기 위해 전북도는 소속 공직자가 참여하는 '재난지원금 골목상권 사용하기 주간(12~23일)'도 운영할 계획이다.

여름휴가철(2단계, 8월)에는 도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촉진을 위해 여름휴가 도내(고창)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추석명절(3단계, 9월)에는 추석명절 종합대책과 연계해 취약부문(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집중 소비촉진을 추진한다.

이중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살아가는 소비 불씨가 반짝효과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범도민 소비실천 특별기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전북도 공무원노조 신규 직원들과 간담회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이 신규 직원들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공직사회 '시보 딱 돌리기' 관행을 개선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새 위원장, 행정부지사가 함께 도청 인사 환영 '웰컴 키트' 꾸러미를 전달하고 '터놓고 이야기합시다'를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실시한 웰컴 키트 전달 행사는 전북도청과 전북노조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 및 신규자들이 선호하는 텀블러, 마스크 목걸이, 커피 쿠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전북도청과 전북노조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웰컴 키트 선물을 받은 한 신규직원은 "노사 공동으로 전북도청에 첫발을 내딛는 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웰컴 키트와 소통 간담회를 만들어 준 이 설렘을 도청에서 생활하는 동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신규 직원들이 잘 적응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조력하는 게 조직이 발전하는 길"이라며 "힐한 맛 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직장 생활을 도울 선배 공무원의 1:1 상담 지원 및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간담회를 통해 관행은 없애고 함께 가는 조직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공직사회 '시보 딱 돌리기' 관행을 개선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새 위원장 행정부지사가 함께 도청 인사 환영 '웰컴 키트' 꾸러미를 전달하고, '터놓고 이야기합시다'를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지역발전 기여 규모 1939억원

도내 생산물품 우선 구매율 전국 최고 수준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7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올해 지역발전 기여 사업 규모가 지난해 1814억원을 넘어선 총 19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생산물품 우선 구매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일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 제고를 위한 각 지역별 지역발전사업 실적들을 공개했다.

관련 내용에는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2020년 지역발전사업 실적과 2021년 계획을 담고 있다.

지역발전사업은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지역인재 육성, ▲지역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등 총 6개 분야로 나뉜다. 이중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생산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실적이 단연 눈에 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비율은 전국 최고인 38%로, 연간 850억 원 규모의 물품을 지역에서 구

매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2.9%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은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통계치를 집계 시작한 2018년 이래 매년 증가해왔다.

기관 특화 자원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농수산대학의 소비급감 농산물 진흥원의 초·중학교 대상 도서 기증,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맞춤형 정보보안 컨설팅 등 전북 이전기관 모두가 기부 활동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호상 기자

농촌중심지 활성화·균형발전

농식품부, 임실·순창 등 도내 지자체와 '농촌협약' 체결 전북도, 내년 상반기 김제·진안·무주와 체결 준비 중

전북도는 7일 임실군과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면>

이번 농촌협약은 전국 12개 일반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임실군과 순창군을 포함, 농촌 공간 전략계획이 우수한 전국 12개 시·군을 협약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에 참여한 시장·군수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농촌협약을 체결한 임실군은 임실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382억원(국비 268억원), 순창군은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383억원(국비 268억원)을 투자해 농촌 지역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 종합적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임실군과 순창군은 농촌협약

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협약 위원회를 설치,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농촌협약을 준비해 왔다.

아울러, 전북도는 임실군 순창군의 최초 농촌협약에 이어, 김제시와 진안군, 무주군이 올해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내년 상반기 농촌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농촌협약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전북도는 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하고, 전라·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의 사전 검토·자문, 협약의 이행 지원 등 계획에 대한 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했다"며 "농촌 지역 주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보건, 복지, 교육 등 기초·복합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